

# 누가 국론 분열 시키나... 12년간 부른 노래 중단시킨 건 정부

국가보훈처가 16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부가 국론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보훈처와 국정을 책임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 광주전남지역 사회의 바람, 국민적 여론에도 기념곡 지정은 물론 기념식에서의 제창도 거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면서다. 특히 보훈처가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기념곡 지정 거부에 대해 ▲기념식에서 제창 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과 관련 있다 ▲합창 방식 고수는 참석자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의 이유를 밝힌 보도자료를 내면서 되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 ■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일지

연도	내용	비고
'82 상반기	남들이 노래곡으로 제작	윤상원·박기순 영혼결혼식 헌정
'83~'97	5·18 유족회서 추모제 지낼 때 제창	
'97~'02	정부(시) 주관 기념식 때 제창	'97.5.7 5월 18일 국가기념일 제정
'03~'08	보훈처 주관 기념식 때 제창	'02.7.27 국립묘지 승격
'09~'15	식전행사도 합창단 합창	이명박·박근혜 정부
'16.5.13	박대통령 "국론분열 없도록 하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16.5.16	보훈처 "합창단 합창 방식 유지"	"제창은 국론 분열" 주장

### 국민여론 압도적 찬성... 애국가 핑계대지 말라

#### 국론 분열 누가 조장하나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를 비롯한 지역민사회단체는 이날 "민주정부 12년간 제창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합창 형식으로 바뀌면서 국론이 분열됐다"며 "정부가 국론 분열의 주범"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훈처가 오후 5·18기념식에서도 지난 7년간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다. 보훈처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하는 결정을 밝히면서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부르던 국론이 분열되고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보훈처의 설명과는 반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쪽으로 크게 기운 것으로 진작부터 파악됐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5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p),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3.5%로 '반대'(29.4%)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지난 2013년 5월 9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43.2%, 반대 의견이 29.4%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약 10%포인트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55.2%로 '반대'(26.2%)를 압도했다.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5·18 희생자와 유족, 광주전남지역민 모두 한결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고 함께 불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자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 실체가 없는 행편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면서 보훈처가 주장한 근거도 궁색하다는 지적이 더다. 보훈처는 기념곡 지정 불가 이유로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특정 단체의 민중의례에서 불리는 노래여서 대통령, 총리 등 정부 요인이 참석할 정부 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수단체 측의 주장도 전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전후 사정을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기념곡 지정에 관한 국민적 여론이 지난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 줄곧 제창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 합창 형식으로 바뀌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말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고 대접받으면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굳이 지정할 이유도 없다"면서 "보수 정권 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에 색을 칠하고 왜곡하면서 유족 입장을 우선 법이나 제도로 명확하게 해서 논란을 없애자는 게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가 16일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론분열 조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라며 규탄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1982년 만든 노래 1991년 북한 영화에 쓰여 안된다?

#### 보훈처 거부 이유도 한심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 거부 이유의 하나로 북한이 지난 1991년 제작한 5·18 관련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이어서 기념곡 지정은 물론 제창도 불가하다는 극우 단체의 주장을 인용했다.

일부 극소수 극우인사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중 '임'과 '새 날'의 의미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보훈처가 기념곡 제창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82년 만들어졌고 북한 영화는 9년 뒤 제작됐다는 점에서 "애국가도 북한이 부르면 제창을 못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곡을 쓴 작곡가나 가사의 바탕이 된 시를 쓴 인물은 물론 여야 정치인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곡을 쓴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한 노래인 만큼 두 사람을 지칭하고 나아가 80년 5월의 희생자, 나아가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가사 '새 날'의 경우 군사 독재와 폭압이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등생도 아는 사실을 왜 정부가 나서 '색칠'하는지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사의 바탕이 된 시 '깃비 날아'를 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과거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보훈처 측의 논리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보훈처 내용을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곡이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노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김일성 찬양곡으로 의심하면 합창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제창이 강요라는 억지 논리... '자율의사'도 모호

#### 제창 거부·합창 유지 속셈은

보훈처는 기념식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이 참석하는 탓에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창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참석자 자율에 맡겨 노래를 같이 부르든, 듣기만 하든 내버려 둬으로써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아전인수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이 제창이라고 해도 원치 않는 참석자의 경우 꼭 노래를 같이 부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 형식으로 불릴 당시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



더불어민주당 부산·경남 당선인들이 16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윤상원 열사의 묘비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영호남 함께 민주주의 지키자"

#### 더민주 부산·경남 당선인 5월 묘지서 '임 행진곡' 제창

더불어민주당 부산·경남 당선인들이 16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김영춘·최인호·김해영·전재수 등 부산 당선인 4명과 김경수·민홍철·서형수 등 경남 당선인 3명은 이날 오전 5·18 묘지를 찾았다.

지난 12~13일 더민주 당선인 워크숍 중 묘지를 참배했지만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부산·경남 지역민이 함께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찾게 됐다고 당선인들은 밝혔다.

이들은 방명록에 "광주항쟁과 부마항쟁의 정신이 한 형제임을 가슴에 새기며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참배에 헌화했다. 당선인들은 참배 후 송정역으로 자리를 옮겨 5·18 단체의 주먹밥 나누기 행사에 참여, 시민들과 주먹밥을 함께 만들어 송정역을 오가는 시민·승객들에게 나눠주며 영호남의 화합과 단결로 5월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떠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형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일약문의 ▶ 0621 605-1115, 1024, 1021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골드

-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 5.18 민주화운동 제36주년 기념예배 및 심포지엄

80년 5월 광주는 민주, 인권, 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족의 소중한 가치요 세계 유산에 등록된 역사적 자산입니다.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5.18의 참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념예배와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6. 5. 18(수) 오후2시
- 장소 : 광주빛교회당(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35 T. 525-6151)
- 주제 : "5월 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
- 순서 : 1부 기념예배(사회-박상규 목사(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설교-채영남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2부 심포지엄(강사-최진 박사(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정지석 목사(국경선평화학교 대표)
- 문의 : 총무/권정용 목사(010-8606-1202)
- 주최 :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
- 주관 :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지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호광지방회/대한성공회 광주교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남노회인권위, 광주노회인권위, 광주노동회 인권위 광주YMCA/광주YMCA/광주CBS